



# 꿈많은 아이들

## 전설경



얼마전 평양전학의 길에 미래과학자거리  
를 지나던 나는 해운초급중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  
울이게 되었다.

《우리 사는 미래과학자거리는 정말 멋있  
지?》

《정말! 우리가 사는 저 아파트는 대동강  
에 떠있는 돛배갈구 저기 지향이네가 사는  
아파트는 우주에 올라가는 계단승강기같  
애, 안 그래?》

《우주계단승강기! 야, 듣고보니 그렇구  
나! 네 말대로 한다면 우주여행도 꿈이 아니  
겠대. 호호호...》

《정말 그래. 저 살림집에서 사는 과학자  
들인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 꿈을 현실로  
펼쳐놓지 않나 두고봐. 아니, 물론 미래의  
꿈이야 우리가 현실로 꽃피워야지 뭐. 앞으  
로 박사가 되어서 말이야...》

그 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우리 아이  
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꿈을 지니게  
된것은...

지난 20세기초에 우리 나라를 다녀간 유  
럽의 한 작가는 지계를 무겁게 지고 서있는  
소년을 형상한 조각상을 빚어놓고 꿈을 잃은  
소년의 얼굴이 곧 조선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 보여주는 우리 아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경  
이적인가.

세계 여러 나라들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미국땅에서까지 큰 파문을 일으켰던 다섯살  
난 꼬마화가며 세계체조계를 놀래운 나 어린  
체조선수.

국제피아노콩클에서 특별상을 받은 경상  
유치원의 꼬마피아노연주가들과 국제수학을  
림픽경연에서 제1위를 쟁취한 나 어린 수재  
들, 한해에만도 월드컵을 두번이나 들  
어올린 우리의 나 어린 여자축구선수들...

정말이지 그들모두는 온 나라에 수풀처럼  
일떠선 소년궁전들과 소년회관, 체육관, 경  
기장들에서 자기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꽃  
피우며 자라났으며 지금 이 시각도 그 얼마  
나 많은 아이들이 보다 창창한 래일을 꿈꾸  
며 자라나고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느  
라니 이 나라 아이들  
의 행복한 꿈을 그토  
록 소중히 여기시며  
고스란히 꽃피워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을 금할수 없었다.

정녕 돌이켜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꽃피워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분들이 이 세  
상 그 어디에 있어본적 있었던가.

언제나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 조국의 미래  
가 비껴있다시며 아이들의 꿈과 리상을 현  
실로 꽃피워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은 우리 당  
의 로선과 정책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이라 떠받들며 새 학교  
와 사랑의 궁전, 야영소를 세워주시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선 세상에서 으뜸가는 육  
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워  
주시고 친부모도 줄수 없었던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는 그 품이 바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이다.

이런 친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이 나라  
아이들이 세계를 딛고 올라설 자신만만한 배  
심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멋진 래일의 리  
상을 꿈꾸는 공상가들로, 꿈많은 아이들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꿈많은 아이들! 진정 이들의 아름다운 꿈  
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선군덕  
속에 지켜지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  
길아래 푸른 하늘의 무게구름처럼 더욱 부풀  
어오르는것이다.

그렇다! 우리 아이들은 꿈많은 아이들이다.

꿈을 꾸면 그대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울  
것없이 마음껏 행복하게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하여 우리 조국의 오늘은 더  
밝고 더 명랑하고 더 웃음 넘치고있으며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 휘황찬란할것이다...

행복에 겨워 웃고 떠들며 과학기술전당, 그  
들이 제일 즐겨찾는 어린이꿈관으로 달려가  
는 그들의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나의 가슴  
은 해돋는 아침 바다처럼 마냥 설레이었다.